# 임실군, 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 "매우 잘했다"

임실=박길수 기자

임실군이 교통약자를 배려한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선진 교통정책을 잘 시행한 전국 우 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8일 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시 하는 2021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에서 전국 2 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 혔다.

군은 국토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정책시행에 있어 안전성과 편리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이뤄

국토부의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전국 지자 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다.

이번 평가는 인구 규모와 도시철도 유무에 따라 161개 지자체를 5개(A~E) 그룹으로 나 눠 추진됐으며. 대중교통 발전 및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중교통 시설과 서비스, 행정과 정책 지원 등 19개 평가지표와 51개 평가내용으로 지난 7월에서 11월까지 서면 평가, 현지실사, 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2위, 우수기관 선정 장관 표창 수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5개 그룹 중 가장 많 은 E그룹인 군 단위 지자체 77개에 속했으며, 총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의 이 같은 높은 평가는 주민 맞춤형 다 양한 시책발굴은 물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시행이 크게 인정받았 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전북 동부 산간 지역 으로 지리적. 지역적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 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구축 과 서비스 제공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교통편의 증 진과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맞춤형 시책시 행,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대중 교통 행정서비스 향상 및 적극적인 정책지원 으로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우수시책 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더욱 발전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다양 하고 체계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 민 맞춤형 대중교통 선진화 정책 시행의 결 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심 군수는 "앞으로도 대중교통에 소 외된 지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는 정 책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선진 교통행정을 대 표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 남원시, 내년 국비 확보 역대 최대 중점사업 국비 1,691억원 확보

남원시는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1,691억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38.9%(474억원) 증가 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중점 확보대상사업으로 선정해 확보한 국비는 1,691 억원으로, 올해 대비 38.9%(474억원) 증가했다.

신규로 발굴해 확보한 연차사업도 82건에 총사업 비 3,228억원(국비 1,948억원)에 이른다.

시는 국비 확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부처 공 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80건의 공모사업을 따낸 결과 라고 설명했다. 공모사업 총 사업비는 1,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0%(700억원) 상승했다.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친환경전기열차 기술개발(R&D) 사업예산도 72억원 을 반영시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인 상황인데, 전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소중한 국비예산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규 기자

###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 수원 메가쇼 팔도밥상페어 참가

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9일부터 12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수원 메가쇼 팔도밥상페어'에 참가해 대한민국 유일 홍삼 특구에 서 생산되는 진안홍삼 제품을 홍보한다.

메가쇼 수원 팔도밥상페어는 '수도권 600만 주부 들의 핫플레이스' 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음식, 주방 용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소비재 박람회로 250여개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다.

사업단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진안군홍삼연구소 기술이전 제품인 '빠망젤리'와 '어린이홍삼 젤리홍', '빠망쥬스'등 어린이 홍삼제품과 진안군수품질인증 제품인 '프리미엄홍삼정골드','진안홍삼골든데이즈'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명인인 송화수홍삼 명인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안군수품질인증 제품인 진 안홍삼 달인액은 시음 이벤트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양병채 기자

## 고창군, 식초문화 도시로 도약 식초문화 아카데미 수료생 58명 배출

고창군은 지난 8일 식초문화 아카데미 수료생 58 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식초문화 도시로 도약하 고 있다.

이들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천연 발효식초 제조 와 활용, 상품화 등으로 발효식초 전문인 인력양성과 고창 농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교육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정규 3개 과정에서 각 25회에 걸쳐 진행, 기본반(식초입문, 초산발효 이 론, 효소발효, 누룩 만들기, 식초응용제품 등), 응용반 (발효이론, 곡물식초, 분말식초, 발사믹 식초제조, 술 빚기, 발효이론 등), 상품화반(상품화, 브랜드 마케팅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으로 나눠 이론과 실습교 육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고창발효식초 전문가로 성장해 갔다.

군은 이밖에 식초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해 60여명 의 리더강사를 양성해 식초문화 확산과 건강한 식문 화 정착을 위해 읍면별 찾아가는 식초교실을 운영하 여 마을 주민 2,200여명에게 손쉽게 식초만드는 방 법에 대해 알렸다. /안병철 기자

# 오락가락하는 이용호에 '철새 정치인' 비유

###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 국민의힘 입당한 이용호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 회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을 맹비난했다. 지역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 를 내 "변절자 이용호는 더 이상 남원임 실순창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회의 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임에도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공보에까지 문재인 정부를 돕 겠다는 위장된 민주당 마케팅으로 지역 주민을 호도했음을 기억한다"고 말하면 서 "우리 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망언을 일삼았던 반민주당 행적에도 불 구하고, 대통합을 위해 많은 인사들과 함께하려 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그럼에도 본

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 해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을 주지 않 으면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지역과 당의 안정을 위해 지역위원장 문 제를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국힘당을 선택 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이 밝힌 국민 의힘 입당 취지에 대해서도 모두 궤변이 라고 비판했다. 지역위원회는 정치적인 신념과 철학 없이 눈앞에 보이는 유불 리를 쫓아 오락가락하는 이 의원의 행 태를 철새 정치인에 비유하면서,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

지역위원회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 은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 다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석고대죄 해 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규 기자

# 남원시, 버스승강장 27개소에 추위대피시설 설치

남원시는 동절기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 편해소를 위해 2,000만원을 들여 시내권 주 요 승강장에 추위대피시설을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월락 삼거리, 도통아파트, 한신아파트, 향교동 행정 복지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부영1 차아파트, 도통동 양우내안애아파트 등 27개 소다. 추위대피시설은 내부에서 버스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을 사용해 출입통 로를 미닫이로 만들어 대기승객들이 자유로 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추위대피시설은 내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 이다. /박영규 기자

# 고창군은 지난 7일 '2021 유네스코 고창

고창군, 유네스코 고창 생태 미술 프로젝트계 종합포럼

생태 미술 프로젝트' 종합포럼을 열었다.

생태 미술 프로젝트는 지난달까지 열렸던 '전방위로 작동하는 예술의 순환: 도시의 생 태, 생태적 도시展'과 연계해 진행, 문화기획 자 안민영이 사회를 맡았다.

이들은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와 시민참가 자들이 모여 전시연계포럼 참여에 관한 소감 과 함께'고창의 생태적 조건 자산, 공존을 위 한 조건'이란 주제의 이야기장을 펼쳤으며'사 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생태미술이란 무엇인 가?', '지역 미술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까?'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그 결과 기획자, 작가, 생태연구가, 문화행 정가 등이 모여 지역의 생태와 미술관을 논 의하는 집단지성의 장이 된 것.

최근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과 같은 생태



문제,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부흥을 위한 미술관의 역할을 탐색해보는 시간이 됐다.

오태종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포럼은 생태 미술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생태와 지역에 문 제에 대한 각자 다양한 해법을 찾는 기회였 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 창의 다양한 자원들을 잇는 에코뮤지엄 구축 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철 기자

# 임실군,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서



### 농촌지도자연합회 역량 강화 교육

임실군은 8일 지사면 스마트팜 하나농장 에서 사)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박세 일)회원 18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박세일 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극 대응 방안, 신 소득 작목의 선 제적 도입 및 재배 기술 습득 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아열대 작물 48종이 재배되고 있는 하나농장에서는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습득 및 반려 식물의 화분 분갈이 체험 등 현장 교육도 병행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임실군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12개 읍·면 46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고 매년 지 속적인 교육을 받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임실 군 농업이 선진 농업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하 고 있다. /박길수 기자

